

성명서 채택안

의안번호 7

제출년월일 : 1998.11월 2일

제 출 자 : 김완규의원외6명

1. 제안이유

- 최근 언론단체에서 30년전인 지난 1968년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당시 진부면) 한 가난한 화전민의 아들 반공소년 「이승복」 군이 외친 「나는 공산당시 싫어요」 라는 절규가 조작되었다고 주장에 대해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입장을 밝혀 다시는 이땅에 조작설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이승복군의 반공절규가 냉전논리에 의한 날조등의 이유로 「사실과 허위」를 가리는 도마위에 오른 것에 대해 분노의 선을 넘어서 국민적 가치관 혼란에 우려가 깊음.
- 나. 언론의 「조작설주장」은 사회 혼란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함.
- 다. 「허위조작설」을 주장하는 언론은
 - 이승복군의 영정앞에 무릎꿇고 머리숙여 사죄하여야 함.
 - 이승복 추모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고계신 유가족, 이웃주민, 각급 기관단체, 평창군민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여야 함.
 - 국민가치관을 혼란하게 한 것에 대하여 정정사과문을 발표하여야 함.
 - 30년이 지난 지금에와서 조작설을 주장하게된 배경과 이유를 반드시 밝혀야 함.

성 명 서

최근 언론단체에서 30년전인 지난 1968년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당시 진부면) 한 가난한 화전민의 아들 반공소년「이승복」군이 외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절규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역사상 최대의 비극인 6.25가 발발한지 20여년도 채 못지난 1968년 12월 9일 한창 부모에게 재롱을 부리며 뛰어다녀야 할 9살 박이 순진무구한 이승복 소년이 울진·삼척지구로 침투한 무장공비의 총칼에 굴복하지 않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로 분연히 맞서다가 잔혹하게 죽임을 당한 「고 이승복」군의 항거사건을 우리 국민모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고있는 10대에서 40대까지 누구나 할 것 없이 초등학교 시절 「이승복」군의 용기있는 항거에 대한 선생님의 말씀을 어린 가슴 조아리며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21세기를 짊어지고 갈 미래의 꿈나무 유치원생 아들·딸들도 「이승복」군의 용기있는 항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30년동안 그를 기리기 위한 추모사업의 일환으로 이승복 기념관 건립과 생가복원, 폐교된 속사초등학교 계방분교 존치, 장학사업, 전국교정 이승복 동상건립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며, 반공교육의 산 현장인 이승복기념관에는 연간 50여만명 이라는 많은 참배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려 왔지만 지난 10월 22일 이승복기념관에서 열린 제30주기 이승복 추모제에는 「조작설」 탓인지 예년보다 갑절이나 많은 400여명의 애도객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특히 현장에는 예년에 없던 「승복군으로 부터 정직함과 용기를 배웠습니다」라는 동문들의 정성어린 플래카드가 걸어져 행사를 더욱 숙연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1992년 가을 한국기자협회가 발간한 「저널리즘」의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신화는 이렇게 조작됐다」를 시작으로 금년 들어서도 6월 25일 「중앙일보」의 「언론의 허위보도 사례」 제목 아래 보도된 조작설, 8월 1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신문 모니터분과」에서 "말"誌에 게재한 「"공산당이 싫어요"는 조선일보의 작문」, 8월 27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서울시 지하철 시청역에서 「반공구호 앞엔 진실도 필요없나?」라는 제목으로 그 당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의 보도를 실은 68년 12월 11일자 조선일보 신문내용 전시」, 9월 2일 「언노련의 미디어 오늘」의 「이승복군의 조작설 보도」, 9월 22일 「MBC TV PD수첩」의 「오보 그 진실을 밝힌다」 등 각종 언론단체의 조작설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작설을 접할 때 마다 우리는 분노의 선을 넘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토가 분단된 이후 지난 50여년 동안 수많은 북한의 무력도발이 계속되어 왔으며, 오늘까지도 남과 북이 서로 팽팽히 대치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6.25 발발 직후인 40여년 전만 해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나라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웃간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던 우리가 오늘에 와서는 지난 날의 어려웠던 시절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과소비, 황금만능주의, 이기주의에 빠져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고 있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국가의 안보는 경쟁력을 갖춘 국방력에 의해 좌우된다고는 하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이 안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철저한 안보의식이 뒷받침 되어야 함을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노력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우리가 지표로 삼고 상징해야 할 훌륭한 역사적 인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6·25이후 우리가 손꼽아 내놓을 만한 인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러한 현실 속에서 누구의 강요와 댓가도 없이 순수하고도 천진난만한 9살박이 어린 소년의 작은 가슴속에서 터져나온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반공절규가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언론단체에 의해 "냉전논리에 의한 날조니, 언론의 허위·작문이니, 이승복신화 조작이니, 반공 이데올로기를 위하여 조작된 신화니"하면서 「사실과 허위」를 가리는 도마 위에 오른 것에 대해 우리는 분노의 선을 넘어서 국민적 가치관 혼란에 더욱 깊은 우려를 금할 길 없습니다.

분명히 언론은 사실에 입각하여 기사화 해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기사화 하면 안되며, 모든 기사는 이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인 문제, 타인의 명예훼손, 득과 실의 비교교량 등을 면밀히 예측하여 신중하게 기사화 하여야 함에도 개인적인 견해나 추측 등으로 기사화 함은 물론, 한 언론단체의 잘못된 보도를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할 타 언론단체가 「언론상업주의」에 눈이 멀어 뒤따라 보도한후

사회적 물의가 일자 사과와 책임회피, 은폐 시키기에 급급한 어처
구니 없는 행태는 마땅히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마땅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평창군의회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 「허위조작설」을
주장하는 언론단체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 투철한 반공정신과 용기있는 삶을 살다간 "이승복"군의 영정
앞에 무릎꿇고 머리숙여 사죄하여야 한다.
2. 이승복군과 가족을 잃은 슬픔, 그 당시 충격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유가족, 당시 상황을 증언한 이웃주민, 현재까지 이승복
추모사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은 각급 기관단체 및 평창
군민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여야 한다.
3. 조작설로 국민 가치관을 혼란하게한 것에 대하여 정정 사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4.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조작설을 주장하게된 배경과 이유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언론은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나, 민주적 기본질서의 존중과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하여야 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여야 하며, 타인의 명예나 권위 또는 사회윤리를 침해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허위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허위로 보도한 것은 사회가치관을 혼란케하는 행위
일 뿐 만 아니라, 분명히 국민의 시선을 끌기 위한 「언론상업주의」
에 치우친 사회기본질서 침해행위라 할 것입니다.

우리 평창군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언론단체 조작설주장』에 대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다시는 『조작설』등이 이 땅에 제기되지 않도록 투쟁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1998년 11월 3일

강원도 평창군의회 의원 일동